



영국 United Kingdom

# 영국 IOSH, 화학물질사고 최소화 위한 6단계 지침 발표



최근 영국산업안전보건협회(IOSH)는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. 6단계로 이루어진 사고 최소화 지침에는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화학물질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. 이번 지침을 공개하며 영국 IOSH의 한 관계자는 “근로 환경이나 근로조건, 과정의 광범위한 검토와 함께 유해위험화학물질에 대한 검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”고 주장했다.

**IOSH가 발표한 6단계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**

● 1단계 - 유해화학물질 사용 금지

가능하면 제조 공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화학물질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.

● 2단계 - 덜 위험한 물질로 갈아타라

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 없다면 그보다 좀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.

● 3단계 -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

화학물질 대체를 계획하고 있는 회사는 의사결정과정의 일환으로 반드시 전문가 및 관리자와 상의를 해야 한다. 그래야 보다 안전한 물질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.

● 4단계 - 별도의 작업공간을 마련하라

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따로 떨어진 장소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● 5단계 -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은 필수

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가지고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그 물질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고, 해당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.

● 6단계 - 보호구 착용은 기본

화학물질의 악영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보호구(보호장갑, 보안경, 송기마스크 등)를 지급하고 이를 철저히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